

“개같이” 빛난 서른 살 남자의 죽음



안치용의 세계문학 파노라마
‘100권의 고전, 100개의 세계’

〈2〉프란츠 카프카의 ‘소송’

◆작품 속 인물과 마찬가지로 경계인이었던 카프카

원제는 독일어로 ‘Der Prozess’이고, 영어 제목은 ‘The Trial’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심판’이라는 제목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소송’이라고 제목을 붙이기도 하는데, 많이 쓰는 ‘심판’은 좀 부적절한 제목이다. ‘심판’은 일본식 번역 오용의 답습 사례로 많이 거론된다. 원어 자체가 ‘Prozess’인데다, 특정 시점을 잘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365일의 흐름을 이야기하고 있어서, 원제가 의미를 훨씬 더 잘 드러낸다.

‘성’ ‘변신’과 마찬가지로 이 작품에서도 카프카적인 독특한 소설기법을 목격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은 이걸 불편하게 느끼고, 어떤 사람은 동화와 냉정한 리얼리즘의 혼합이라고 하며 열광한다. 카프카적 서술에는 비(非)사실과 사실이 같이 등장하는데, 비사실을 가장 사실적으로 그려냄으로써 사실을 더 뚜렷하게 보여주는 서술 태도라고 평가할 만하다.

이 소설은 미완성 소설로 알려졌지만, 읽어보면 이게 왜 미완성 소설인지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완성돼 있다. 카프카는 비사실을 사실적으로 그림으로써 사실에 있는 비사실적인 요소들을 발라내고 사실의 정수만을 보여주는 형식을 취하고 그렇게 완성된 미완성을 보여준다.

작품을 읽을 때 우리는 대체로 작가를 함께 읽는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게 있기는 하지만, 특히 서구에서는 부친과의 관계가 작가의 정신세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카프카도 마찬가지였다. 아버지라는 절대 권위 앞에서 미약하고 흔들리는 아들로서 카프카는 끊임없이 주변인을 전전하였고 분열과 괴리, 양분(兩分)을 끝내 벗어나지 못했다.

카프카가 낮에는 노동자재해보험국에서 일하다가 밤에는 작가의 일을 했고, 프라하에 사는 독일어를 쓰는 유대인이었다는 사실은 그의 근본적 분열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카프카는 ‘아슈케나즈 유대인’ (아슈케나즈)으로 분류된다. ‘아슈케나즈’가 히브리어로 독일어를 의미하니, ‘아슈케나즈 유대인’은 문자 그대로 독일(계) 유대인이다.

스페인 지역을 빼고 독일을 중심으로 유럽 전역에 거주한 유대인 전체를 일컫기도 한다. 카프카가 ‘어머니’라고 말한 ‘보헤미아의 고색창연한 수도’ 프라하와 프라하를 안은 보헤미아는 당시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의 속령이었다. 평생 거의 프라하에서 살았지만 따라서 카프카의 국적은 오스트

리아·헝가리 제국이 된다. 그를 둘러싼 언어와 민족이 복잡다단했고, 그는 독일어로 소설을 남긴 유대인이었다. 카프카가 나치가 득세하기 전에 유명을 달리해 알지 못했지만, 그의 여동생들이 나중에 나치의 가스실에서 목숨을 잃었다는 사실까지 함께 떠올리면 여러모로 마음이 복잡해진다.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 조선인으로 살았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또 다른 복잡한 상황이었다.

그의 생애의 중요한 시기는 1차 세계대전(1914~1918년)의 직접적 영향 아래 있었다. 반유대주의, 게르만주의, 슬라브주의 같은 반명적 괴물이 유럽을 활보하였고, 누구나 그걸 의식할 수 있는 형편이었다. 유대인이라면 더 그랬을 것이다. 카프카는 결국 자신의 민족을 핍박하고 학살하게 되는 게르만주의의 언어로써 문학 작품을 남긴 사람인데, 그렇다고 그를 ‘게르만’적 사유



소송
프란츠 카프카/문학동네

의 인물이었다고 말할 수는 당연히 불가하고, 게르만주의의 대립항에 해당하는 시오니즘을 받아들인 사람 또한 아니었다.

세계사적 혼란과 분열의 상황에서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태지만 예민하게 시대를 지각하며 고뇌하는 지식인으로 살다가 40살을 갓 넘겨 죽었다. 합스부르크왕가 지배의 체코에서 독일어를 구사하는 유대인으로 살았고, 아버지의 억압에 억눌리고 총괄적 분열 속에서 삶을 버텨낸 예민한 작가가 프카의 자양은 모든 것에서 주변인이자 경계인이었다는 숙명이 아니었을까.

◆실존주의 소설인 듯 아닌 듯

카프카는 자신의 소설에서 실존을 그리는데 역점을 두었을까. 장 폴 사르트르를 비롯하여 후대 실존주의 작가들이 실존주의의 문학적 형상화와 연관지어 카프카에 많이 열광했다. 사실 카프카의 소설에는 인간 실존 또는 인간 존재의 불완전성과 고뇌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들어있기는 하다. 카프카의 소설을 실존주의 소설이라고 분

류할 수는 없지만, 그의 소설에 그런 성향이 강하게 배인 것을 부인하지 못한다.

그리스 비극과 관련지어서 생각해 보자면, 고전 비극의 구조와 요제프 K가 자리한 ‘소송’의 구조는 닮았다. 이 소설에서 제일 유명한 문장이자 첫 문장은 “내가 잘못하지 않은 것 때문에”이고, 그렇게 요제프 K가 체포당한다. ‘체포당하는 것’과 ‘내 잘못 없음’이 결합한다. 무고한 희생이다. 얼핏 카프카의 실존주의와 그리스 고전 비극이 비슷해 보인다.

그러나 둘 사이엔 곧 차이점이 발견된다.

그리스 비극에서는 주인공인 영웅이 ‘내가 잘못하지 않은 것’을 안다. 그런데 실존주의에서는 비록 ‘내가 잘못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은 하지만 ‘내가 잘못하지 않은 것’을 모른다. 자신의 잘못이 아님을 아는가, 모르는가가 그리스 비극과 ‘소송’의 차이이다. 희생은 동일하다. 그리스 비극에선 어떤 인물의 희생이냐가 중요한 반면 카프

락거리거나, 성을 기웃거리거나, 벌레가 돼서 집안에서 빈둥거릴지라도 결말은 주인공에게 미확정이다.

카프카 소설의 주인공은 자신이 왜 이런 상황에 부닥쳐 있고 어떤 선택을 내려야 할 바를 모른다. 그는 모르는 가운데 선택을 한다. 보기에 따라 이렇게 (수동적으로) 선택하는 카프카 소설의 주인공은 영웅적이다.

그리스 비극의 영웅은 타고난 숭고함과 우월함 때문에 영웅이고, 다시 말해 이미 영웅이란 숙명이 주어졌 있지만, 카프카 소설의 주인공은 주어짐 때문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에서 (비자발적이긴 하지만) 선택하고 결행함으로써 모종의 영웅이 된다. 이러한 주장은 실존주의에 기반한 영웅의 발굴이다.

◆불멸의 카프카, 불멸의 요제프 K

영웅 요제프 K에게 무죄로 판결받을 가능성은 그러나 전무하다. 이 소설이 비극의 결말을 피하려면 무죄를 받는 방법이 있고 그것이 어렵다면 판결을 끝없이 지연시키는 방법이 있다.

미완성작으로 간주된 이 소설은 이 두 가지를 거부하고 가슴에 칼이 꽂혀서 칼이 두 번 돌려져 죽으면서, “개같이”라는 말을 남기는 결말을 택한다. “개같이”라는 이 말이 죽음에 관해서 얘기한 건지 인생에 관해서 얘기한 건지, 어느 쪽인지 둘 다인지는 알 수 없다. 아무튼 요제프 K는 자신의 죽음에 즈음하여 수치(羞恥)를 인식했다.

삶의 마지막 순간에 이루어진 이같은 인식은, 무엇인가에 대한 주체적인 절박한 판단이며 따라서 최종적으로 결행한 주체의 선택이자 행동이다. 무엇인가에 대해 주체적인 선택을 통해 수치를 자각하는 이 사람은 그러한 인식으로 추락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행동으로 비로소 상승한다. 이때 이것을 영웅적인 행위라고 불러도 무방하며, 평생 남루한 인생은 이 단말마의 짧디짧은 시간에 “개같이” 빛나게 된다. 이 사람은 카프카의 영웅이며, 또는 실존주의의 영웅이다. 그리하여 카프카 자신도 실존주의의 영웅으로 추앙받게 된다. 비록 그 빛남은 “개같이” 짧았지만, 작품 속 주인공 요제프 K와 작가 카프카는 불멸한다.

게오르크 루카치 같은 마르크스주의 비평가들은 카프카가 가진 비활동성, 유유부단함, 경계에서 있음, 그리고 그의 진공과 탈역사성을 불편해하는 경향을 드러낸다. 탈시대적이고 진공에 부유하면서 다의적인 해석이 가능하고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카프카의 인물들이 그들에게 불편할밖에. 그래도 그 빛남은 그들도 어찌 못했다.

/인문학자 겸 영화평론가(ESG연구소 소장)

이유없이 체포돼 죽음 맞이하는 과정 그려
저자는 실존을 그리는데 역점
주어진 상황에서 선택하고 결행하는 주인공
실존주의 기반한 영웅의 발굴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임신부 접종 논란에 당국 “확진시 조산-저체중아 분만 위험 ↑” /사진 유토이미지
▲ 선거 여론조사 결과 왜곡 혐의 대구 여론조사업체·직원 고발

▲ 포스코 포항제철소서 용역사 직원 작업 중 사망
▲ 택배노조, 국토부에 ‘CJ대한통운 요금 인상분 주장’ 검증 요청



▲ 박영수 계좌서 화천대유에 5억…차 “김만배-이기성 간 거래” /사진 뉴스1
▲ ‘딸 대학원 입학 아빠찬스 혐의’ 연대 前부총장 1심 무죄